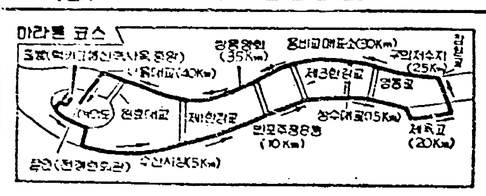
오늘 서울國際마라톤

한국 順位보다 記錄경신 기대

정오 汝矣島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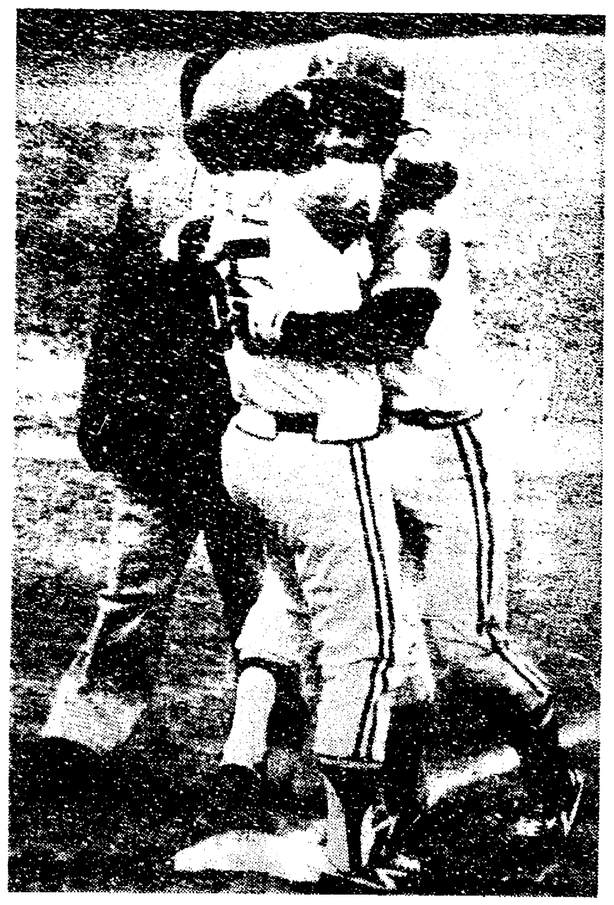
◇코스 구간표

구분(km)	지점	선두통과 예정시각	제한시간
5	잠실교	15분35초	초초
10	시청	31분10초	초초
15	광교	46분50초	초초
20	대한생명	1시간2분20초	1시간20분
25	수산시장	1시간18분4초	1시간25분
30	의왕	1시간33분39초	1시간55분
35	저수지	1시간49분4초	2시간4분
40	반환점	2시간6분36초	초초
42.195	결승점	2시간12분0초	2시간

82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28일 낮12시 여의도를 지점으로 한강변도로 42·195Km에서 열린다. 「마라톤」이란 명칭은 BC 490년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야에 상륙했을 때 아테네의 필·로저스(34·2시간9분37초)를 비롯한 1만여국내외선수들과 여자부 세계최고기록보유자인 영국의 로·모(25·뉴질랜드)가 출전, 한국의 마라톤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이번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는 2만여명의 선수가 참가, 기록경신을 노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1부주자로 나간 白仁天감독을 비롯, 3루코치 朴스케이인 權鳳鶴코치가 영천마라톤 결승대회의 투입을 李鍾道 柳承奎 등 지금한다. (3·1절) 겸인고 슬리와감정을 나누고있다.

◇감격의 포옹 1부주자로 나간 白仁天감독을 3루코치 朴스케이인 權鳳鶴코치가 영천마라톤 결승대회의 투입을 李鍾道 柳承奎 등 지금한다. (3·1절) 겸인고 슬리와감정을 나누고있다.



◇프로 1호 홈런의 환희 프로야구 제1호 홈런。三星4번 李萬洙(6)가 5회초 통렬한 좌월홈런을 날리고 홈인、徐永武감독의 축하를 받고있다。

MBC 初盤열세 延長 10회말 大逆轉

三星 한때 快走 홈런3發에 쓰러져

표 로野球 開幕戰 靑龍이 獅子잡아…11對7

작완 柳鍾謙 力投… 8회동안 31打者 무실점선방

李鍾道(靑龍) 구바이 滿塁홈런

프로야구 2만여서 노장 李鍾道(36)의 만루 결승홈런으로 三星라이언즈를 11대7로 누르고 MBC청룡이 10회말 2死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7회말 2死후 7-4의 열세에서 4점 柳承奎의 행운의 3점홈런을 날려 7-7의 동점을 만들었고、연장10회말 2死후 李鍾道가 좌중간 스탠드에 담아지지않는 만루홈런을 날려 11-7의 역전드라마를 연출했다。

MBC 李鍾道의 선발기용은 의외였다。 三星은 5회초 李萬洙가 프로야구1호 솔로홈런을 날리는등 6회까지 7-4의 우세를 지켰다。

MBC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6회말 1사만루에서 徐永武감독이 대타로 2、3루의 찬스를 열었으나 4번 柳承奎가 루수앞 땅볼로 잡혀 3루주자 金容允이 아웃되면서 2死만루로 바뀌었다。

5번 白仁天은 『2안타를 치면 걱정없다』던 三星 徐永武감독의 공언대로 결정적인 동점 3점홈런을 날려 MBC는 3번째 2死만루의 호기를 맞았다。 5번 李鍾道에게 李萬洙는 『무슨일이 있어도 좋은 승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 히무·앤드·런에맞춰 좌전적시타로 2、3루의 찬스를 열었으나 4번 柳承奎가 루수앞 땅볼로 잡혀 3루주자 金容允이 아웃되었다。

5번 白仁天은 『2안타를 치면 걱정없다』던 三星 徐永武감독의 공언대로 결정적인 동점 3점홈런을 날려 MBC는 3번째 2死만루의 호기를 맞았다。 5번 李鍾道에게 李萬洙는 『무슨일이 있어도 좋은 승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연장아 2개의볼을 던졌다。 李鍾道는 초볼하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초볼하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 李鍾道는 제3구인 코스로 날아든 직구를 정확하게 강타、볼카운트 2-1에서 3루주자 金容允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승타를 터뜨렸다。

勝투 白仁天감독과 敗전패당한 徐永武감독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프로야구 1호홈런의 주인공이 된 李萬洙는 『홈런보다 팀이 이겨 더 기쁘다』고 말했다。

나무배트 사용으로인한 투수에대한 과신으로 3~5점대에서 승부가 나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짓밟힌 안타공방에 양감독은 놀라지 않을수없었다。 三星은 10개、MBC는16개。

三星라이언즈는 초반의 기습으로 1-2에 5득점、2-2에 2점을 보태 7-2로 앞서 구원투수 나간 白仁天감독을 비롯、徐永武감독、영관 한규 정화희 외 스탠드코·돈에 골을 던져준 이때 관중들은 갈채를 보냈다。

기세를 몰았다。 1회초 2死후 3번 成廣洙가 운좋게 MBC투수 金容允의 글러브를 뚫겨 나간 타구로 2루까지 진출、4번 李萬洙의 좌익수옆 2루타로 홈인、선제점을 기록했으며 李연시 MBC 유격수의 실책으로 2점째를 얻었다。

나무배트 사용으로인한 투수에대한 과신으로 3~5점대에서 승부가 나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짓밟힌 안타공방에 양감독은 놀라지 않을수없었다。 三星은 10개、MBC는16개。

三星라이언즈는 초반의 기습으로 1-2에 5득점、2-2에 2점을 보태 7-2로 앞서 구원투수 나간 白仁天감독을 비롯、徐永武감독、영관 한규 정화희 외 스탠드코·돈에 골을 던져준 이때 관중들은 갈채를 보냈다。

2死만루의 찬스를 놓친 MBC는 8회말 1사후 7번 鄭동안타 1루주자 金萬金이 2루도루에 성공、2死후 李鍾道의 우중간 적시타로 2점째를 얻어 7-4로 앞서 나갔다。

三星은 5회초 李萬洙의 선발기용은 의외였다。 三星은 5회초 李萬洙가 프로야구1호 솔로홈런을 날리는등 6회까지 7-4의 우세를 지켰다。

MBC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6회말 1사만루에서 徐永武감독이 대타로 2、3루의 찬스를 열었으나 4번 柳承奎가 루수앞 땅볼로 잡혀 3루주자 金容允이 아웃되었다。

5번 白仁天은 『2안타를 치면 걱정없다』던 三星 徐永武감독의 공언대로 결정적인 동점 3점홈런을 날려 MBC는 3번째 2死만루의 호기를 맞았다。 5번 李鍾道에게 李萬洙는 『무슨일이 있어도 좋은 승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연장아 2개의볼을 던졌다。 李鍾道는 초볼하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 李鍾道는 제3구인 코스로 날아든 직구를 정확하게 강타、볼카운트 2-1에서 3루주자 金容允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승타를 터뜨렸다。

勝투 白仁天감독과 敗전패당한 徐永武감독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프로야구 1호홈런의 주인공이 된 李萬洙는 『무슨일이 있어도 좋은 승부를 하라』고 당부했다。

◇開幕戰전적

三星 라이언즈
230 011 00…0 7
010 111 30…4 11

▲홈런=李萬洙(5회·3점·白仁天(6회)柳承安(7회·3점) 李鍾道(10회·만루·이상MBC)

◇수훈李鍾道엔 오토바이副賞

개막경기의 수훈선수인 MBC의 李鍾道는 오토바이 1대、홈런1호를 기록한 三星의 李萬洙는 돈나무등정세트를、그밖의 홈런타자들은 전자손목시계를 각각 부상으로 받았다。

프로야구 첫날1게임의 유료입장객은 2만6천여명、입장수입은6천5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석 1천5백석(5천원)、내야 8천5백석(3천원)、외야 1만5천석(2천원)의 입장권은매진됐